

소외받은 이들의 소박한 행복

‘새야 새야 소쩍새야’ 소쩍새마을 엮음

사람들은 두 다리가 성할 때 그 두 다리의 고마움을 모른다. 소쩍새 마을의 기타리스트 차철주 씨. 그도 두 다리를 잃기 전에는 그랬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잃었을 때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수술 후 병실에 누워있던 그날, 그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전혀 가능하지 못했다. 신체의 일부분인 다리를 잃은 후 그는 사랑 대신 슬픔과 증오를 발판 삼아 ‘홀로 서기’를 시도해야 했다. 이제 그는 두 다리가 성한 사람들보다 더욱 행복하다고 말한다.

강원도 원주 치악산 자락에 위치한 소쩍새 마을에는 부모에게 자식에게 또는 사회로부터 소외



받은 이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정을 나누며 살고 있다. 심지어 봉사자의 손길을 빌리지 않고는 밥 한술 떠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에게 욕심 많은 이가 배앗을 수 없는 그들의 소박한 행복이 있다. 신간 <새야 새야 소쩍새야> (하이퍼북)는 밥풀 같은 웃음을 불리고 사는 소쩍새 마을 가족들의 행복을 담고 있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불자가 알아야 할 상식 150가지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지현·일지·윤창화 공저



이 책은 현재 조계종 스님들이 읽는 장삼은 1937년 8월 조선고승유교법회를 앞두고 지눌 스님의 장삼을 원형으로 한다는 사실까지도 밝히고 있다.

시인으로 지난 77년부터 지금까지 인도, 네팔 등지를 순례하며 <선사감상사전> (전2권) 등을 내놓는 등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지현 스님, 직관적인 문체로 불교인문주의라는 독특한 영역을 심화시켜 오면서 20여권의 저술을 내놓고 경전과 선어록을 번역하고 있는 일지 스님,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을 마치고 불교학술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윤창화 민족사 대표. 이 세 사람이 불자들의 불명(佛名) 퇴치를 선언하고 나섰다.

뜻도 모르고 쓰는 용어 어원·유래 곁들여 설명

불교를 모르는 초보자를 위해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민족사관) 역작을 내놓은 것이다. 그렇다고 초심자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불교대학 학생들은 물론 포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한 포교사들까지 불자라면 한번쯤 꼭 읽어야 할 필독서다.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널리 쓰이는 불교 용어 가운데 중적으로 탐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주제들은 그동안 학자나 스님들이 “이 정도는 다 알겠지”라며 등한시 해왔던 것들이다.

가사와 장삼은 언제 입는 법복입니까? 를 시작으로 ‘점을 왜 절이라 합니까?’ ‘깨달으면 부처나 나나 다 똑같다고 하는데 어째서 합니까?’ ‘대선사, 대종사, 대회장 등 스님의 존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등 경전과 교

리 그리고 수행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불교 상식 150가지를 간추려 읽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이해 놓았다. 그렇다고 그 쉬움이 결코 가벼움은 아니다. 주제어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물론 어원이나 유래 등을 천착하고 있어 밑줄을 칠 부분도 많기 때문이다.

현재 조계종 스님이 입고 있는 장삼 즉 ‘보조장삼’은 1937년 8월 선학원에서 열린 조선고승유교법회를 앞두고 최법술 스님의 고증을 참고하여 송광사에서 보관된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장삼을 실측해 만들었다는 점, 조실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라는 점, 방장은 본래 선(禪)을 전문으로 하는 선종사찰에서 주지 스님의 거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는 설명 등은 밑줄을 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글 부분에는 꼭 알아야 할 간단한 불교영어 131가지를 사전보다 더 쉽게 정리해 놓고 있다. 값 6천8백원.

김중근 기자 gamia@buddhapa.com

불교 조각사 시대순 정리

‘중국의 불교미술’ 최성은 옮김



중국 <후한서>에는 “한제가 신 섬기기를 좋아하여 부처와 노자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적고 있다. 이 기록은 중국 불교의 초기 형태를 알게 하는 흥미로운 기록이다.

북성에서 미술사를 가르치고 있는 최성은 교수가 우리말로 옮긴 <중국의 불교미술> (구노 미키 지음, 시공사)은 중국 불교미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후한시대에서부터 원

시대까지 중국 불교미술을 조각사 중심으로 정리한다. 중국 불교조각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시대순으로 요약한 이 책은, 중국 조각사의 여러 문제에 대해 지은이의 시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학자들의 견해를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발굴과 그에 따른 출토품을 대부분 언급하는 등 최신 자료의 반영에도 충실하다. 부록으로 연표를 첨부하고 참고문헌도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며 또한 목록을 통해 작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주고 있다. 값 1만2천원.

사찰의 서정미 한시에 담아

‘사찰 누정...’ 민병수의 역



<사찰, 누정 그리고 한시> (태학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찰과 누정 65곳의 연혁과 주변 경관을 소개하고 그곳에서 쓰인 시문을 번역하고 평설도 붙여놓았다.

“...온갖 인연 다 함께 끊어져 적막하네. 길은 돌 돌을 뚫어 나 있고, 샘물은 바위에 스며 떨어지네. 하얀 달은 추녀 끝에 걸렸는데, 서늘한 바람은 숲과 골짜기 흔드네...”

<동문선>에 실려 있는 단언 스님의 ‘문수사’에 대해 한문학자 송재소 씨는 “속세와 떨어져 있는 산사의 분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는 시다”며 평했다. 얼마 전 퇴임한 서울대 민병수 명예교수를 비롯해 한문학자 50여명이 평을 달았다. 이와 함께 사찰사와 누정사의 차이 등 학문적으로도 접근했다. 값 2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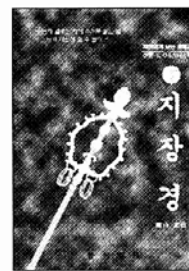
참된 행복 일깨워주는 불교의 가르침

‘만화 지장경’ 정일 스님 지음

<지장경> (보광선원)이란 이름으로 서울 우이동 보광선원장 정일(선학인 이사장) 스님이 만화책을 펴냈다. 선원에서 선서가 아닌 만화책을 내놓았다는 것이 다소 의외다. 하지만 출간 이유를 들어보면 쉽게 납득이 간다. 정일 스님은 “물질만능주의로 가치관 붕괴 그리고 불교에 대한 이해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오락약세인 오늘의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깨달음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만화책을 펴냈다”고 출간 이유를 밝혔다.

그렇다면 많은 경전 가운데 <지장경>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장경>의 인과법칙과 자자자(自作自受)의 내용이 물질만능으로 치닫는 현대 사회와 이기심으로 윤리 도덕이 붕괴된 대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인지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지장경>은 경전 내용과 불화를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컬러 만화로 구성됐다. 부처님, 지장보살, 큰스님, 부광동자, 송이(원송이) 등이 주요 등장인물이다. 특히 불자로서 넓고 깊은 진리 탐구를 위



하여 인간세상과 하늘나라 도리천궁 그리고 지옥을 마음대로 오고가면 바르게 삶을 살아 가도록 이끌어 주는 부광동자와 그의 친구 송이는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는 주요 캐릭터다. 이들은 독자를 대신한 질문으로 경전 이해의 폭을 자연스럽게 넓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값 3천원. 김중근 기자

2001년 불교출판계 결산

신간 100여종뿐 ‘불황의 늪’

“불교출판사가 사는 길은 책을 내놓지 않는 것이다.” 계속된 출판 불황과 고질적인 매출 부진을 벗지 못한 불교출판사가 올해 초 내놓은 처방이다. 이렇게 시작된 올 한해 불교출판계는 ‘수면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출판 종수가 현저하게 감소했다.

불교출판사 가운데 한권도 내놓지 않은 출판사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한자리에 머물렀다. 책방 여사무원의 집계에 따르면 올 한해 불교출판사들이 내놓은 신간 100여종으로 불과했다. 이 가운데 자신 있게 소개할 만한 불서는 손에 꼽을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교학술과 순수불교문학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죽을 한해 불교출판사들은 기존의 책을 읽기 쉽게 재편집한 작은 책이나 수필, 논문, 역사, 법공양 등이외는 새로운 기획물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었다.

반면 일반 출판사의 불교 공략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1주일을 기준으로 보통 10여권 정도의 불교관련 책들이 출간되는데 90% 이상이 일반 출판사에서 내놓은 책이란 점이 이를 입증한다. 그렇다고 일반출판사가 내놓은 책들이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것도 아니다. 교보문고가 발표한 2001년 베스트셀러 50위에 올해 출간된 불교관련 책은 원성 스님의 <거울> (이레, 17위)과 현각 스님의 <선의 나침반> (열림원, 48위)이 올라 있을 정도다.

불교출판사들이 불황의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일반출판사의 공략은 불교출판사가 설 자리를 더욱 더 좁게 만들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작가들도 편집과 기획 그리고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일반 출판사를 선호하고 있어 불교출판사는 더욱 어려운 상태다.

이러한 불교출판의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굵직한 전집들이 출간됐다는 점이다. 근대불교학의 태두 김동화 박사의 전집 출간, 한글대장경 완간, 가산학회총서 첫 권 출간, 북한 팔만대장경 선역본 국내 출간 등이 그 대표적이다. 또한 사찰답사기가 주축한 가운데 불교미술, 문화 등 사찰의 속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의 잇따른 출간도 불교출판 한 획을 긋는 고무적인 일로 평가할 만하다.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셀서 10

경향 9시이론 집기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파아나두라 대논쟁	오 진	운 주 사
2	성철 스님 시봉이야기	원 택	김 영 사
3	풍경소리	풍경소리	샘 터
4	내가 본 부처	도 법	호 미
5	현대관음기도 영험록	성 일	불 광
6	달라이 라마 행복론	류 시 화	김 영 사
7	찾는 속에 달이 뜨네	지 운	법 공 양
8	금강경 이해	각 목	불 광
9	생활 수행이야기	법 상	불 광
10	고려판선원정규 역주	법 혜	지혜문화연구원

도서 안내: (02)737-0695



세계 4대 성불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숭산 선사 공안집
은 세상은 한 송이 꽃
무신 편집 | 값 12,000원
현암사 전화: 365-5051~6, 팩스: 313-2729

눈은 눈을 보지 못함같이

시인 장용철의 작고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를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사연이... 감동을 읽는다. 순간을 읽는다!

이말이나 길이란자로의 만년설(萬年雪) 꼭대기에 가야만이 우주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길 가지를 안을 기어오르 우주의 신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태평양 비단길을 다 먹어 보아야만 비단이 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물 안 방울만 찍어 먹어 보아도 비단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눈은 눈을 보지 못함같이 오직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하고 보여주는 것은 눈 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밧모로 말미 보기만을 애쓰기 보다 가까이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애쓰는 것이 중요함입니다. 평이 가장 열심이면 딱 오이떡 자리를 잡고 서도 인생도 최선을 다하여 삼백 아무런 불만도 소리도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자는 제 용이 생긴 날에만 죽고 하는 제 용이 난 날에만 죽고 싶어합니다.

- 본문중에서 -

불광출판사 전화 02)913-0753 팩스 02)913-0755



법화삼부경 (무량의경, 묘법연화경, 관보현보살법경)

법화삼부경을 한문과 한글 번역을 곁들여 읽기 쉽게 만들었으며, 품품마다 앞장에 그림(금빛 탕화)을 넣어 독자들의 시각을 밝게하여 佛心을 돈독하게 하였다.



지자·석요원 회상

아울러 우리의 소원 남북통일과 더불어 韓, 中, 日의 동양 삼국이 영원한 우방으로서 전쟁이 다시없기를 바라고 세계민국이 한식구 (一佛乘, 衆生도 하나, 세계도 하나, 진리도 하나)가 되어 平等無差別의 세계가 되기를 구원실성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발원하였다.

역대 법화경조사 영정 어록 삽입

간경도감에서 펴낸 책들

- 실상묘법연화경요품 석요라 역편 4×6판 / 870원 / 값 35,000원
- 알기쉬운 석요라 역음 법 화 경 신국판 / 176원 / 값 6,000원
- 법화경과 원자 물리학 석요라 역음 신국판 / 266원 / 값 8,000원

- 묘연 큰스님 특별 좌담법문 석요원 역음 수행공덕 과보따라-천상가고, 극락가네 신국판 / 158원 / 값 8,000원
- 만화 호도의 대성인 석요라 글/김명식 그림 진 록 대 사 신국판 / 264원 / 값 10,000원
- 만화 신라의 큰별 석요라 글/김명식 그림 자 장 울 사 신국판 / 274원 / 값 10,000원

- 만화 신라의 순교자 석요라 글/김명식 그림 이차돈 성사 신국판 / 274원 / 값 10,000원
- 부모가 책임져야 할 중생의 영혼 석요라 역음 아가야, 용서해 다오 신국판 / 270원 / 값 10,000원
- 각세진경(覺世眞經) 석요원 역음 4×6판 / 값 1,000원